

# ‘폭우 피해’ 곡성군, 구호물품도 부족

### 1353명 이재민 발생 불구 구례 등 인근 지역비해 상대적으로 부족 쌀·생수·조리 도구 등 생필품 필요...폭염에 선풍기 등도 절실

곡성군이 예상보다 심각한 이재민 피해로 인해 구호물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8일 간 전남 곡성군에는 최대 550mm의 폭우가 쏟아졌다. 저지대 침수와 함께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며 주택과 농경지 곳곳이 침수됐다.

역대급 수해에 피해조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피해량은 매일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곡성군 자료에 의하면 8월 12일까지 조사된 재산피해액은 약 600억 원이었지만 18일 기준으로는 1,124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수해복구를 위해 여름휴가를 모두 취소했다.

그리고 주민들과 각지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도 연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들의 노력으로 피해시설들은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정부에서도 해당 지역



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수해복구에 탄력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재민이다. 현재까지 곡성군에서는 1,353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런데 곡성군의 경우 폭우 초기에 발생한 오산 성덕마을 산사태 붕괴에 언론의 관심이 쏠렸다. 이후 폭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나 이재민 발생 등의 피해는 인근 남원시나 구례군으로 초점이 모아졌다. 그러다보니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물품 등의 손길이 인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곡성군에서도 최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해 이재민들을 돕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예산의

한계와 집행에 소요되는 시간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현재 이재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활과 직결된 쌀, 생수, 조리 도구 등의 생필품이다. 폭염이 시작되고부터는 이재민들을 위한 가정용 선풍기와 임시주거시설용 대형 선풍기도 절실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침수된 주택의 도배와 장판을 수선해줄 재능기부 등의 자원봉사도 필요한 상황이다.

곡성군은 21일까지 공공 및 사유시설, 축산 및 농업 시설 등 피해 현황을 정밀조사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피해복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 군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이재민들의 건강이 걱정된다. 이재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응원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 나주시, 읍·면·동 직원 ‘도로명주소 교육’

### 도로명주소 체계 안정적 정착 및 정확한 민원 대응 도모

나주시는 18일 시청 이화실에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기본원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로명주소 체계의 안정적 정착과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당 민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도로명주소의 바른 표기 방법과 주소 체계 이해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도로명주소는 지명·역사·주민의견 등을 반영해 이름을 붙이고 주택·건물에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번호를 매겨 표기하는 주소 체계다.

2011년 7월 29일 도로명 주소 고시 이후 기존 지번 주소와 병행 사용해오다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도로는 폭에 따라 대로(폭 40m·8차로 이상), 로(12~40m·2~7차로), 길(기타 도로)로 분류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도로명 주소를 쉽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로명 안내시설물 확충과 다중이용시설 사물주소 부여를 통한 위치정보를 구축해 일상 속 도로명 주소 편의를 도모해가겠다”고 밝혔다.

## 화순군, ‘생활 속 방역수칙 실천’ 캠페인



핵심 방역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하기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로 가리고 하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기 등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광주와 우리 지역은 동일 생활권으로 언제든지 감염 전파 위험이 있으므로 군민들께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 속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 장성군 읍시가지·황룡면, 장성배수펌프장 덕에 면했다

### 1990년 황룡면 월평리에 설치... 폭우 내린 8일 29만톤 배수



폭우가 내린 지난 8일 장성배수펌프장 현장. 16시간 동안 가동해 수해를 막았다.

장성군 황룡면에 설치되어 있는 장성배수펌프장이 이번 장마에서 시가지 및 농경지의 침수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난

7일에서 9일 사이, 장성군에는 평균 강우량 4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다.

특히 8일에는 강 상류 지점인 장성호에서 초당 400~500톤의 저수를 방류해 황룡강 수위가 높

아짐에 따라, 장성읍 및 황룡면 시가지 지역에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장성군은 8일 새벽 3시 무렵부터 장성배수펌프장 내의 펌프 3대를 모두 가동시켰다. 펌프 작동은 당일 오후까지 16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장성군 관계자는 “8일 하루 동안 29만톤의 물을 방류해 시가지와 농경지의 침수를 막았다”고 밝혔다.

30여년 전인 1989년 여름, 많은 비로 침수를 겪은 장성군은 이듬해 방재책 마련을 위해 38억 원을 투입, 황룡면 월평리에 장성배수펌프장을 조성했다. 1609㎡ 규모에 유수 용량은 8100㎥로, 3대의 전동펌프가 설치됐다. 펌프 3대를 총 가동할 경우, 시간당 1만9440톤의 물을 빨아들일 수 있다.

## 담양군, 타지역 거주 고교 기숙사 학생 코로나 검사

담양군은 2020년 2학기 개학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7일 관내 고등학교의 타지역 거주 기숙사 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이번 검사는 군 보건소에서 검체팀(3팀 12명)을 편성해 해당 학교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 출장 검사로 진행했으며, 모든 검사 관련 비용은 군비를 긴급 편성해 이뤄졌다.

이날 한빛고등학교, 담양공업고등학교 학생 202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으며,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최형식 군수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집중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한정된 공간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기숙사에서 감염되면 지역사회 전파의 우려가 매우 높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검사를 시행했다”며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청정담양을 함께 지켜내자”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

